



소녀상 옆 수요집회 참가한 외국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13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공학·의학계열 대학 정원 2만명 늘린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복지부·여성부 업무보고

7년간 대학정원 16만명 축소  
1150개 사업장 임금피크제  
수면 내시경·항암제 전보 적용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교육부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해 공학계열 등 학과 정원을 2020년까지 2만명 이상 조정할 계획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인다는 기존 목표는 계속 추진 하되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도 3배 늘린다. 사회맞춤형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까지 현재 4927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창업·취업교육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대학 내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해 우수 창업동아리 300개를 창업단계까지 연계하는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창업 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취업 취약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에서 저학년과 인문계 학생 중심의 취업·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학생들을 위한 지역 단위 기업 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노동부=고용노동부는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10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은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천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이다.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정부

는 결핵 치료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의 잠복 결핵 발굴 사업 등을 시작,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고객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유도 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200여개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또 선택진료나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33%까지 줄인다.

특히 임신·출산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제왕절개 후의 입

원실 비용은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8년까지 3496개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 전담팀이 구성되는 주민센터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 부안은 '주민복지센터'가 유력하다.

복지 전담팀이 설치된 주민센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는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센터 복지 전담팀을 위한 인력은 올해 1600명 배치된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 국정원 “외국인 근로자 7명 IS 가담”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 관련자 48명을 추방했다는 누적 통계를 발표한 만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테러 단체 관련 혐의를 받아 추가로 강제 출국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무슬림 나라 57개국 출신 15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올 2조4천억 규모 사업 발주

남평~화순 지방도 573억·진도항 297억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나선다.

20일 전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당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총 1만 2273건, 2조4444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도 자체 발주 사업은 830건(3959억원), 시·군 발주 사업은 1만1443건(2조 485억원) 규모다.

전남도가 자체 발주할 사업은 공사 457건(3349억원), 용역 176건(308억원), 물품 179건(302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남평~화순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573억원 등 도로공사 126건(2118억원), 진도항 2단계 건설 공사 297억원 포함 항만사업 5건(701억원),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원 등 하천사업 8건(109억원), 사방사업 164건(32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91.1%인 760건

(360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0.2%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또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 및 용역 발주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 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미자 전라남도 계약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시 도내 생산 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수의계약 시 무늬만 도내 업체가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한국인은 ‘봉’

수입 과일·와인·맥주·스타벅스 커피값 세계 1·2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과일·와인·맥주, 스타벅스 커피 등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세계 1, 2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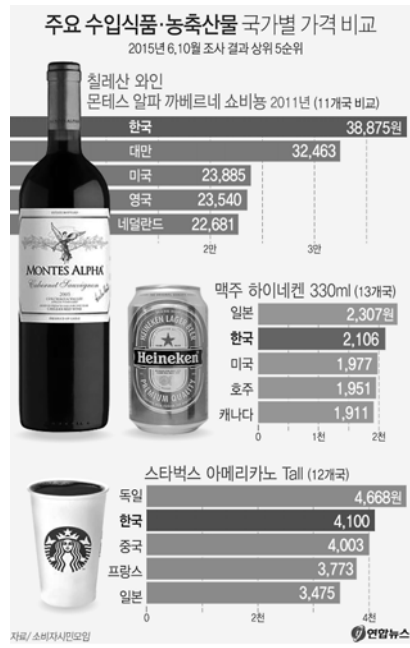
2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작년 6·10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국 주요 도시 현지 백화점·마트·슈퍼마켓에서 주요 수입식품과 농축산물 등 35개 품목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수입 청포도·와인, 자국산 삼겹살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다.

수입 청포도는 미국산 탐스 시들리스 800g, 와인은 칠레산 몬테스알과 가르네스비농 2011년산, 삼겹살은 냉장육 1kg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환율은 지난해 6~12월 평균값이 적용됐다.

한국에서 미국산 청포도는 7009원으로 미국 현지 가격(4069원)의 거의 두 배였고, 와인은 3만8875원으로 5번째로 비싼 네덜란드(2만2681원)와 비교해도 71%나 비쌌다. 중국(1만4679원)의 약 두 배인 국산 삼겹살 가격(2만7930원)도 13개국 중 1위였다.

수입 맥주 하이네켄의 한국 판매가(2016년)는 네덜란드 현지가격(729원)의 약 2.9배, 미국 브랜드 밀러 맥주의 한국 판매가(2203원)도 미국 현지가(960원)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국내 가격은 4100원으로 일본(4위·3475원)보다 18%, 미국(12위·2821원)보다



45% 높은 수준이었다. 코카콜라(2491원)와 펄스콜라(2102원)도 미국(코카 1832원·펄스 1879원)과 비교해 각각 36%, 12% 비쌌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관세 하락에도 실제 수입 맥주 판매가는 낮아지지 않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혜택이 수입 맥주나 과일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유통구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세마을금융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치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금강건설(주)과 함께 미래창조를 위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세 부 분 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
| 건 축         | 본사 또는 현장 공사공무 및 시공 | 0명 | 해당 직무분야, 공동주택 경력자 우대<br>해당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토 목         | 본사 또는 현장 공사공무 및 시공 | 0명 | 해당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br>해당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안 전 설 비 기 전 | 본사 또는 현장 공사공무 및 시공 | 0명 | 해당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br>해당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영 업         | 분양 및 계약관리          | 0명 | 해당 직무 유경험자 우대                         |

※ 공통자격사항

1. 군필 또는 면제자
2.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3. 해당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해당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

제 출 서 류

1. 이 력 서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 연락처 표기) ----- 1부
2. 자기소개서 (전공분야 / 업무수행경력 증명 소개) -----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4. 경력증명서(기술훈련회) ----- 1부

기 타 사 항

1. 접수기간 : 2016년 01월 29일(금요일) 18:00까지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3. 제출방법 : 우편접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2-1, 2층)
  -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 접수 (orioncons@hanmail.net)
4. 문 의 처 : 금강건설(주) 총무부 인사담당 (062) 384-0487

금 강 건 설